

영상으로 배우는 영어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도 잡고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지요. '재미'와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영어 수업. 영상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해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대구 영남중 김병식 교사의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 '디즈니 영화'로 어려운 영어 읽기·쓰기도 쉽고 재미있게



디즈니 만화 영화를 활용한 영어동화책 쓰기 수업'에서 영화를 보고 동화책을 읽은 뒤 보드게임에 참여하는 대구 영남중 학생들. 영남중 제공

대구 영남중의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프로그램 시간. 학생들은 모두 월트 디즈니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의 주요 장면을 본 뒤, 동화책을 읽고, 보드게임을 하며, 자신만의 책을 만든다. 주제선택 프로그램 램인 '디즈니 만화 영화를 활용한 영어동화책 쓰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

'디즈니 만화 영화를 활용한 영어동화책 쓰기 수업'은 학생들의 영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실력을 동시에 '쑥' 키워주는 유익한 시간이다. 김병식 대구 영남중 영어 교사는 친숙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인 △Finding Nemo(니모를 찾아서) △Peter Pan(피터팬) △Up, Up, and

Away(업) △Big Hero(빅 히어로)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영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영어 수업 전반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이 수업은 총 17차시에 걸쳐 진행됐다. 김 교사에게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영어 수업을 진행한 계기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지를 물었다.

같은 내용의 영화·동화로 영어 듣기·읽기 실력 동시에 ‘쑥’

영어 동화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수업 소재가 된다. 하지만 영어를 어려워하거나 영어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무턱대고 영어 동화책을 읽으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어 수업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쉽다. 이럴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어 동화책과 같은 내용의 영어 애니메이션 영상. 영어 동화를 읽기에 앞서 영상을 먼저 보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다.

‘디즈니 만화 영화를 활용한 영어동화책 쓰기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애니메이션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애니메이션의 예고편을 먼저 보여준다. 학생들은 예고편을 보고 나서 모둠원들과 함께 해당 애니메이션의 전체 내용을 유추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 교사는 “영어는 학생들 간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이라서 혼자 힘으로 영어 동화책을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면서 “영화 예고편을 시청하고 모둠원들과 함께 해당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읽을 영어 동화의 내용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한다”고 말했다.

영화 예고편을 본 뒤에는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순차적으로 시청한다. 영화의 주요 장면 하나를 자막 없이 본 뒤, 그 장면에 해당되는 동화책을 읽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가령 영화 ‘니모를 찾아서’에서 주인공 니모가 납치되어 니모의 아빠인 말린이 아들을 찾아 나서는 장면을 봤다면, 영어 동화책에서 해당 장면이 담긴 페이지를 찾아 그 부분을 함께 읽는 것.

김 교사는 “학생들은 자막이 없는 영화를 보며 영어 듣기 실력을 기르고, 영어 동화책을 읽으면서 영어 읽기 실력을 기를 수 있다”면서 “학생들은 이미 영상을 통해 영어 동화책의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줄거리와 내용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영어 듣기수업과 읽기수업이 겹쳐지면서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영상, 다채로운 수업의 촉매제 된다

앞선 차시에서 영화와 동화책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주사위를 굴러 나온 수만큼 말을 이 동하고, 이동한 칸에 적힌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묻는 질문을 읽고 영어로 답하는 보드게임을 하며 영어 읽기와 말하기 실력을 기른다. 영화와 동화를 통해 파악한 인물간의 관계를 마인드맵 형태로 그려보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보고 들은 애니메이션을 직접 소개·요약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비평을 담은 자신만의 책을 만드는 활동도 한다. 이 모든 활동을 하면서 영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실력을 모두 키울 수 있다.

이처럼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은 모든 활동의 ‘촉매제’가 된다. 수업 중간 중간 짧은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은 영어 수업 전반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이것이 결국 나머지 수업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

김 교사는 “영상을 활용하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줄기 때문에 영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할 때도 흥미를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를 수행할 때 도 앞선 수업에서 본 영상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며 더욱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송이 기자 songil21@donga.com

교사의 수업지도 노하우

Q. 수업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보여주면 학생들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사는 단순히 학생들의 ‘흥미 유발’만을 위해 영상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영상을 처음에 보여줄 때는 학생들의 눈이 ‘반짝’하며 빛나지만, 영상이 끝난 뒤 영상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수업을 하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수업의 내용이나 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영상을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중학생들의 경우 영상이 약 10분을 넘어가게 되면 금세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상은 3분 내외로 짧게 잘라서 수업 중간 중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Q. 수업의 효과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아무런 배경지식도 만들어 주지 않은 채 영어로 된 책을 읽으라고 하면 학생들은 영어를 어렵게 느끼고, 영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까지 느낄 수 있다. 학생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어 애니메이션이다.

영어 애니메이션의 재미있는 스토리와 친숙한 캐릭터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같은 내용이라도 영상으로 보면 더욱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보다 쉽게 느끼도록 해준다.

학생들은 영상을 보며 자연스럽게 듣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와 관련된 내용의 영어 동화책을 읽으며 읽기 실력도 키울 수 있다. 보드게임, 인물 관계도 만들기, 자신만의 책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영어 말하기, 쓰기 능력까지 모두 높일 수 있는 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다.

Q.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말 한마디보다 영상 한 장면이 기억에 더욱 오랫동안 남는다. 평소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교훈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그 내용이 담긴 영상을 활용한 수업을 기획해보는 것도 좋다. 가령 교과서에 닉 부이치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닉 부이치치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다룬 영상을 보여주는 식이다.



▶김병식 대구 영남중 영어 교사